

이흥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야당이 지난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지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왜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무참히 지고 말았을까. 이제 차가운 가슴으로 복기(復讐)를 해야 할 때다.

복기란 바둑에서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 이미 끝난 한 판의 대국을 다시 돌아봄을 말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대목에서 실수를 했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실수를 돌아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아픔을 동반한다. 패자(敗者)는 울고 싶어도 복기가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 짧은 시절의 조치훈 9단은 복기를 끝낸 뒤 비 오는 밤거리를 혼자 헤매며 울었다고 한다. 선거에서 패배한 당사자들 역시 '눈물의 복기'를 해야 할 시간이다.

한때는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정동영(이하 존칭 생략)의 몰락은 안타깝지만 예정된 바였다. 그의 패인(敗因)은 조급함이다. 울지 않는 새를 억지로 울게 할 수는 없는 일. 그러나 그 또한 도구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처럼 새가 울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서두른 끝에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욕심만 앞세운 채 '호구'(虎口)에 뛰어드는 우(愚)를 범했다. 대선 패배 이후 그가 걸어온 정치 행보는 '패착'(敗着)의

연속이었다.

그는 고비마다 '악수'(惡手)를 돌으로써 명분도 실리도 잃은 채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2등도 아닌 3등으로 밀린 초라한 현실은 애초 탈당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신당 추진에까지 치명타를 안겼다. 그는 신당 추진의 구실점승(企圖) 오히려 걸림돌이 될 처지로 전락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철새 정치인'이라는 답갈지 않은 이름뿐이다. 그는 지난 2009년 재·보선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는 고향인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엔 야권 분열의 원흉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고비마다 악수 패착의 연속

사람들은 야권 참패의 원인을 '분열'에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안이한 공천과 그에 따른 후보들의 뒤처진 경쟁력이 패배를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수도권만 봐도 그렇다. 경기 성남 중원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55.90%를 얻어 새정치연합과 무소속의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다.

덧붙여 여겨져 온 광주 서구에서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안이한 공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라는 일생일대의 '승부수'(勝負手)를 띄운 천정배는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머쥌 수 있었을까. 본격적인 복기에 들어가 보자.

우선 그의 '메기론'이 잘 먹혀들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메기 효과'는 어항 속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생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무리력에 빠져 있는 일당독점의 광주 정치지형에서 한 마리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메기론'은 시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그만큼 그가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는 증거다.

이에 비해 조영택은 조직력에만 기댄 채 뭔가 새로운 걸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그는 사이 서구 유권자들은 5년 전 서구청장 재·보선에서 봤던 민주당의 오만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당시 김선옥 후보는 무소속의 김중식은 물론 국민참여당 서대석에게도 크게 밀리며 3위에 머물렀다.

역대 광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3위를 기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참패의 원인은 '무리한 공천'에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전라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무소속 전주언에 밀려 낙선한 김선옥을 재활용 하듯 또다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동영의 추락과 천정배의 부활

그때 광주 시민을 무시한 김선옥 후보 공천의 배후에 조영택(당시 서구 갑 의원)이 있었다. 김선옥은 18대 총선에서 조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적이 있었고 조영택은 그 빛을 갠기 위해 무리하게 김선옥을 밀어 주었다가 쓰러진 패배를 맛본 것이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서구 주민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 이번에 표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조영택 본인은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3위에 그친 바 있으니 애초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건 당연하다.

민심 제대로 읽은 '메기론'

이번 재·보선에서 김한길·안철수 등의 대표급들을 통한 유세에 세우지 못한 것도 새정치연합의 패인으로 기록될 것 같다. 대신 복당을 노리는 이용섭 전 의원이 막판 유세에 동참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냉담할 뿐이었다.

한편 선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은 천정배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문재인 대표를 꼽았다. 문재인은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조영택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가 올 때마다 오히려 표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했다고 한다.

이는 '친노'(친 노무현) 지도부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천정배의 탈당 결행도 이러한 호남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어찌 됐든 야권의 심장부에서 일격을 당한 새정치연합의 앞날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마치 바둑돌을 높이 쌓아 놓은 듯 위태로운(危如累卵) 지경이라고나 할까. 당장 천정배의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안방의 반란'이 발동에 떨어진 불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탈당 움직임이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의 길목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공천 = 당선'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바둑돌을 쌓아 놓은 듯 위태로운 누기(累碁之難)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뺏속까지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공천 나눠 먹기 같은 구태(舊態)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사를 수혈하는 한편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제 그야말로 '흘러간 옛 노래'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공터에 진료캠프... 골절환자 부목 없어 고통만 호소

광주 네팔 1차 긴급구호단 귀국

카트만두 산간마을 환경 열악 치료받아도 2차 감염 많아
노숙 지친 이재민 구호 절실... 2차 구호단 23명 오늘 출국

“가 보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처참할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28일 네팔에 도착해 4일까지 7 일간의 긴급 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5 일 귀국한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

협의회(이하 광주 구호협) 1차 긴급 구호단은 현장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1차 긴급 구호단으로 참여한 조선대 병원 의료봉사단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50~70km가량 떨어진 누

와코트 지역과 사쿠에, 카브레 등 3개 지역을 돌며 의료활동을 펼쳤다.

매일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의 짐을 싸고 이동해 다시 짐을 푸는 게 고역이긴 했지만, 이들은 가급적 의료진들이 손길 이 닿지 않은 산간 마을과 현지 NGO 요 구대로 구호활동을 벌여 현지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지진으로 마을이 온통 폐허가 되고 여진이 지속된 탓에 버스 정류장과 고등학교 운동장, 마을 공터 등에 진료 캠프를 설치했다.

지진 영향으로 건물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 20cm가량 머리가 찢어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10세 아이, 손이 부러져도 부목을 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5세 여아 등 중상 환자들도 매일 진료 캠프를 찾았다.

조대병원 의료봉사단장을 맡았던 조수형 응급의학과 교수는 “무너진 집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메었다”면서 “어려운 여건이긴 했지만, 그들의 선한 눈을 보면 한시도 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환자들 대부분 외상 및 골절환자가 많았지만, 집을 잃고 노숙을 하면서 감기와 발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가 가장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선 조선대 외과교수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구호활동 중심의 '광주시 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구호단 23명이 8일 현지에서 파견된다. /최권일기자 cki@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출국을 앞둔 광주시아시아재해긴급구호협의회 2차 구호단원들이 7일 발대식 후 파 이팅을 외치고 있다. 2차 구호단은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19대원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미르치과 소속 의 료진 23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 제공>

대형병원 전문의가 영상기록 보여 농어촌 응급환자 원격 협진한다

8일부터 목포한국병원 등 26개 의료기관 시범사업

대도시 대형병원의 전문의가 영상기록을 보면서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진을 도와 응급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원격협진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목포한국병원 등 6개 거점병원과 26개 의료기관에서 도시-농촌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응급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지의 의사가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방식이다.

거점병원의 의사는 '원격협진시스템'을 통해 컴퓨터단층촬영영상지(CT), 심전도 모니터 영상 등을 보고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진단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협진이 가능해 환자가 이동

중에도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격협진으로 거점병원 전문의와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취약지역 의사가 협력해 환자를 대도시까지 이송하지 않고도 이전보다 수준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를 거점병원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거점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응급수술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인천권병원, 제주한라병원, 춘천성심병원, 안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6개 거점병원과 취약지역의 26개 의료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연말까지 10개 거점 병원과 60개 취약지역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원격협진을 포함한 원격의료로 '의료 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의사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